

6·13지방선거 4개월 앞...인갯 속 광주·전남 민심

“완전 기울어” vs “아직은 몰라”

“민주당 압승할 듯” “민평-미래 선전 관전”
정체성 vs 실리·정당 vs 인물론 놓고 신중
與 전략공천·野 분당사태 민심 향배 ‘측각’
‘미니 총선’, 개헌 맞물려 투표율에도 관심



6·13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낙마로 미니 총선까지 치러지게 되면서 정치권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관에 지방선거 4개월을 알려주는 현황판이 세워져 있다.

“대통령 인기 많잖소” 아무래도 ‘문재인 효과’로 민주당이 시정이든 의원이든 유리하지 않겠어요?” “일당 독점보다 인물이나 다당 구조를 위해 또 ‘절묘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민주당은 후보가 너무 넘쳐 누가 누구지 모르겠고, 국민의당은 둘로 쪼개져 난리고, 국회의원도 뽑아야 하고, 정신이 없네요. 차분히 살펴 봐야죠”

6·13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11일 오전 광주의 한 체육센터 휴게실. 설 연휴를 앞두고 들뜬 분위기에다 동계올림픽과 북한 응원단 등 화제거리도 많아선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진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 TV를 통해 유력 입지자들의 출마선언과 국회의원 당선 무효에 따른 재보궐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기대했다는 듯 여기저기서 ‘셀프 논쟁’과 ‘유권자의 속내’가 드러났다.

“민주당이 휩쓸지 않겠어요? 대통령 인기도 높은 편에...” 40대 후반의 한 남성이 뉘뉘뉘뉘 말을 꺼내자,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완전 기운 것 같은데”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옆에 있던 70대 어르신 이 “그래도 여기서 평민당인가, 민주평화당인가, 그 당을 찍어야 하지 않겠어”라고 D1 향수를 자극했고, 60대 헬스화원도 “민주당이 평화당(민평당)과 합쳐지면 싸움이 없겠지만, 따로 나오면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신중론을 폈다.

설 연휴 전 마지막 ‘불금인’ 지난 9일 저녁 광주의 한 식당. 정치 관심도가 높은 50대 초반의 고교 동창생 모임에선 선거 얘기가 빠지지 않았다.

“5·18, 또 영화로도 나온 ‘1987’ 때 어떤 역할과 활동을 했

는지, 발자취가 중요하지 않겠냐”고 정체성을 강조하자 “언제까지 광주는 5·18, 민주화에만 매몰돼 있어야겠냐. 자식들을 위해서도 먹고 사는 일, 직장, 기업유치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게”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 “정체성과 실리 둘 다 갖춘 후보가 답인데... 아직까지 답(찍을 후보)이 없네”라고 고개를 저었다.

취업준비생 한모(31)씨는 “자체 운영된 국민의당은 호남에 구애할 명분이 없다.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지역 행정과 의정을 이끌 수장을 뽑는 만큼 후보들의 가치관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고 말했다.

은행원 정모(48)씨는 “대통령 지지율의 고공행진으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물표를 준 광주·전남의 민심을 되돌아 봐야 한다”며 “지역맞춤형 공약으로 정책 대결을 해야 민심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선거일이 하루하루 다가오지만, 민심은 여전히 안갯 속이다.

지역민들은 민주당이 ‘대통령 후광’과 집권여당의 프리미엄, 탄탄한 당세(黨勢)를 등에 업고 주도권을 쥔 것으로 보면서도 정치적 변수에도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전남 목포에 사는 한 정당인(46)은 “특정 정당의 ‘바람’은 불지 않은 것이다. 그 동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정외당 등의 약진이 눈의 띄었지만 올해는 민주당과 민평당 등 양자, 또는 삼자구도로 전개되면서 무소속 임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도가 높지만 사고 지구당이 많고 현역 의원이 적어 결집력의 한

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역 민심과는 괴리되는 전략공천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탈도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민평당에 대해서는 “호남팔이가 심하고 이를 식상해하는 층이 확산되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신당은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 후보를 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주의 한 시 의원은 “솔직히 민평당보다는 민주당에 입당해 출마하는 게 장기적으로 낫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요즘 지인들에게 ‘어느 당으로 나오게 내놔야’고 묻는 게 일상이었다.

시민 이모(47)씨는 “반안(반안철수) 정서가 워낙 크다”고 전했다. 4년 전 ‘안철수 바람’, 2년 전 총선 때 국민의당 ‘녹색돌풍’이 이런 반안 광풍으로 변했다고도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발탁해 정계에 입문한 나주 손금주 의원은 국민의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동현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국민의당은 지역에서 1당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시민들이 원하는 걸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도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분당으로 갔다”며 “주변에 ‘민주당 완승’을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개헌투표가 함께 진행되지 않는 이상 투표율이 낮

을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반면 “특정당이 모두 차지 하면 의회, 행정간 균형과 견제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조선대 공직성 교수는 정체성 논쟁의 함정을 경계했다. “정당이 쪼개지면서 민생과는 무관한 정체성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정당들이 현 정권 국정 성공에 따른 호남 혜택 ‘진정한 개혁·평화세력’ 어떤 노선이 호남을 위한 길인가’ 등 추상적 논쟁과 대립각만 세우면, 선한 편이나 악한 편이라는 식으로 편이 짜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심을 살피는 실력경쟁보다는 나이브한 입장 표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다.

개헌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 회사원 최모(52·순천)씨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역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토론회 등을 노력하고 있지만, 중앙에서 여야 합의를 안되고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될 정모(19)군은 “아직 어느 정당을 어느 후보를 찍을 지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설 연휴에 어르신들 얘기부터 들어볼 생각”이라며 “서로 헐뜯는 후보는 찍지 않을 생각이요, 정책 중에서는 청년 종합대책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국민의당, 통합 전당원투표서 73.56% 바른정당과 합당 찬성

13일 양당 통합 전당대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전당원 투표에 불인 결과 전체 73.56%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8~9일 진행된 온라인 투표(케이이보팅)에 이어 10일 진행된 자동 응답시스템(ARS) 투표를 합한 결과다.

이번 전당원 투표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던 양당 통합을 위해 국민의당에서 치르는 일종의 최종 판단이다. 이로써 13일에는 양당의 통합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며, 국민의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

게 됐다.

찬성 의견이 높았던 배경에는 통합 추진과정에서 통합 반대파 인사들이 민주평화당 창당으로 탈당한 것 등이 꼽힌다.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주류를 이룬 것이다.

국민의당은 투표 결과 발표와 함께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통합을 결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통합 과정에서 추진됐던 전당원 투표와 관련해 민주평화당 등 통합 반대파에서는 안 대표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강한 불신감을 표한 바 있다.



北 응원단 가면 논란 통일부 “김일성 아냐”

평양올림픽에 참석 중인 북측 응원단이 10일 젊은 남성의 가면(가면)을 일제히 착용한 것을 두고 김일성 주석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통일부는 역측이라고 부인했다.

통일부는 11일 북한 응원단이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단일팀 경기에서 착용한 가면 모델이 김일성과 흡사하다는 지적에 “북측 스스로가

이 사용한 가면은 ‘미남 가면’이고 우리의 탈춤 가면과 유사하다. 북측에서는 미남 가면이라 칭하며 북에서 남작 역할을 대응으로 사용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국 대통령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김일성 가면 같아 쓸까요”라며 “김여정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해야 하며 김여정이 북으로 돌아가기 전 바로 사과하지 않으면 응원단도 김여정과 함께 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북한에선 김일성 핏줄(김정일, 김정은) 빼고 다른 사람 얼굴 내걸고 공개적인 응원하면 수령 모독으로 수용소 갑니다. 우길 걸 우기세요”라면서 “응원 가면이 김일성 아니라고 우기는 분들 마음은 이해하지만, 팩트는 팩트대로 인정하고 올림픽 분위기 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北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절대 표현 할 수 없다 확인” 반박 하태경 “북한, 김일성 핏줄 빼고 다른 사람 공개적 응원 불가”

그런 식으로 절대 표현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김일성 가면은 썼다는 것은 잘못된 추정”이라며 “현장에 있는 북측관계자 확인결과 그런 의미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매체는 북한응원단이 전날 강릉 관동아이스하키센터에서 열린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에서 쓴 젊은 남자 얼굴의 가면이 김일성과 흡사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응원단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